

90. 9. 9

고3 7%가 기침약 마약대용

서울 1천35명 조사 호기심·괴로움 해소목적...작년 2배

【춘천=김종화 기자】 고교 3년생의 7.1%가 환각상태를 일으키는 진해제(기침약)를 복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호기심과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복용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.

8일 한국약물남용연구소(소장 주왕기·강원대 약대 교수)가 최근 서울시내 여고 3년생 4백80명과 남고 3년생 5백55명 등 총 1천35명을 대상으로 약물남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진해제 복용학생 중 남학생은 38명으로 6.8%, 여학생은 35명으로 7.3%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지난해에 조사한 남학생 3.8%, 여학생 2.3%보다 2배 가량 늘어났다.

진해제를 복용하게 된 동기로는 '호기심' 30.1%, '기분이 편해지고 괴로움을 잊기 위해' 28.8%,

'친구의 권유 또는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' 16.4%, '성적충족을 위해' 12.3% 등의 순이었다.

이 학생들은 또 혼자서 먹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(42.5%), 셋 이상(37%) 또는 둘이서(12.3%) 먹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응답했다. 또 한달 동안의 진해제 복용 일수는 1~5일(53.4%) 6~19일(2.7%) 20일 이상(2.7%) 등으로 나타났다.

진해제를 복용한 학생들은 술집 출입(80.8%) 음란비디오 관람(72.6%) 절도(50.7%) 가출(50.7%) 무단결석(42.5%) 등의 경험을 갖고 있는 데 비해, 복용하지 않은 학생들은 술집 출입(50.6%) 음란비디오 관람(53.1%) 절도(22.7%) 가출(12.2%) 무단결석(16%) 등으로 나타나 진해제 복용학생들의 비행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.

주왕기 소장은 "히로뽕이나 대마초 등을 구입하기 힘든 청소년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진해제를 마약대용물로 복용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"며 "약물복용 방지를 위한 범사회적 지도·계몽활동이 절실하다"고 말했다. 진해제 성분 가운데 텍스트

로 메틸판은 졸음·현기증·구역질·혼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
홍분·무력감·시력장애·호흡장애·